

“초대형공기청정기로 세계 공략… 직원 꿈터이자 전진기지”

Q 르포
이지네트웍스 파주공장

‘우리가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합니다!’

경기 파주 월릉에 있는 이지네트웍스의 공장 사무실 2층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이런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그 위로는 ‘2025년 매출 1000억원 (렌탈 550억 에코버 350억 신사업 100억) 영업이익 200억’이란 글씨가 적혀 있다.

“처음엔 ‘고객중심’이 우리 회사의 최우선 가치였다. 그런데 경영을 하다보니 ‘직원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직장생활이 행복해야 가정과 사회가 행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원행복을 1순위로 바꿨다. (여기에 있는)우리가 행복해야 결국 고객도 행복하기 때문이다.”

이지네트웍스 파주공장서 만난 박관병 대표가 설명했다. ‘사화만사성(社和萬事成)’이 사훈인 셈이다.

이지네트웍스는 지난해 약 28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는 350억원을 목표하고 있다. 2025년까지 순항하면 코스닥 상장도 충분히 노려볼만하다. 물론 증권시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한 직원들의 ‘행복’을 박대표는 최우선적으로 챙길 참이다.

이곳은 박대표를 포함한 이지네트웍스 임직원들의 희망을 키우는 ‘꿈터’이자 ‘전진기지’인 셈이다.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인 이지네트웍스는 사실상 초대형 공기청정기 시장의 개척자로 정평이 나 있는 회사다.

“국내에서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나누는 기준은 50평(약 165㎡)이다. 대형 제품을 내놔던 대기업도 관련 시장에서



박관병 대표가 대용량 공기청정살균기 에코버를 설명하고 있다.

2000년 종합렌탈회사로 시작해 창업 20년만에 매출 200억 돌파 공청기등 친환경가전사업 확장

이미 철수했고 일부 중소기업만 남아있던 시장이었다. 그러다 우리가 73평형에서 이론적으로 1000평형까지 가능한 대형 공기청정기를 내놓게 됐다. 2018년부터 연구팀을 꾸려 본격 개발에 나서면서다. 본업인 렌탈업에 이어 친환경가전사업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다.”

이지네트웍스는 2000년에 이지렌탈로 시작한 회사다.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복합기, 사무용가구, 에어컨, 냉장고, 의료기기 등 먹는 것 빼고 다 렌탈을 해주는 종합렌탈 전문 회사로 성장했다. 창업 20년만인 지난 2020년엔 렌탈 매출만 20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박대표는 “선거때면 전국 3800여개 투표소에 들어가는 노트북, 단말기 등을 다 우리가 납품한다. 수능 문제 출제를 위해 합숙하는 인원이 쓰는 각종 물품도 우리 회사가 렌탈한 것들이다. 고양꽃박람회 이동화장실도 납품한다. 깨끗하게 써달라(웃음)”고 말했다.

렌탈사업은 수수료장사다보니 이익률이 박할 수 밖에 없다. 성장에도 한계가

있다. 유지보수 등에도 손이 많이 간다.

그렇다보니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필요했다. 그것도 아주 똑똑한 아이템이면 금상첨화였다. 그러다 눈에 띈 것이 공기청정기, 그것도 초대형 공기청정기였다.

이지네트웍스는 꼭 10년전에 공조기 사업에 발을 들여놨었다. 하지만 쓴맛을 봤다.

강산이 한번 바뀐 뒤 당시 연구팀들이 다시 망쳤다. 그런데 제품을 개발해 다 만들어 놓고나니 판로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대용량 공기청정기에 대한 표준이 없어 조달등록을 하지 못했다. 3년 넘게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대기업들이 (대형)제품을 만들어 표준이 생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하느냐며 목소리도 높였다.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던 결과우리 때문에 대형 공기청정기 표준이 생겼다. ‘KS9326’ 코드는 그렇게 탄생했다.”

박대표가 결코 짧지 않았던 시간을 되내었다. 이지네트웍스는 2019년 4월 국내 최초로 대용량 공기청정기 제품으로 정부조달등록에 성공했다.

신사업이 될 운명이었는지 제품을 만들고 조달등록까지 마치고나니 코로나 19가 터졌다.

그는 “에코버(ECOVER) 공기청정



이지네트웍스 파주공장서 대형 필터를 생산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73평~400평형 제품 중심 시장 공략 2025년까지 매출 1000억·상장 목표 日·佛·美 등 수출… 글로벌 기업으로

기는 4단계의 공기 청정·정화장치, 3단계 필터 그리고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광촉매 필터, 이온클러스터 기술을 결합한 올인원(All-In-One) 필터 시스템을 통해 냄새와 미세먼지, 각종 유해세균을 99%까지 제거할 수 있다. 여기에 사물인터넷(IoT) 솔루션을 적용해 PC,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 등을 통해 원격으로 제어하고 점검할 수 있다”고 제품을 설명했다.

이지네트웍스의 에코버가 공기 청정뿐만 아니라 살균 기능까지 갖춘데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넓은 공간까지 커버할 수 있는 대용량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제품을 찾는 곳들이 빠르게 늘었다.

서울메트로(9호선), 부산교통공사(1호선), SRT, 김포골드라인, 한국철도공사, 부산시설관리공단, 구로구청(서울), 고양시청, 롯데백화점 노원점, 코엑스 등이 대표적이다.

제품은 73평·120평·240평·340평·400평형 등 다양하게 갖췄다. 이 가운데 73평형 제품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

이지네트웍스는 버스형 공기청정 살균기도 잇따라 출시했다. 가정, 사무실 등에 최적화된 소형 제품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버스에 장착하는 제품은 거래처에서 의뢰해 개발을 하게 됐다. 경기지역에서 버스를 운영하는 KD운송그룹으로부터 지난해 제품 설치를 수주한데 이어 신차에도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설치 장소인 버스의 특성상 고객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모서리를 둥글게 디자인했다.”

신제품으로 나올 가정용은 타사 대비 크기를 35% 가량 줄였고, 3300개의 에어홀을 갖춰 서라운드 공기 청정과 살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서 대용량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을 개척한 이지네트웍스는 이제 해외 시장을 공략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해외에도 대용량 공기청정살균기가 없다. 블루오션이다. 일본에 300대를 수출했고, 프랑스에 있는 군병원에도 납품했다. 태국에 있는 공조회사와는 MOU를 맺었다. 올해 9월 미국 LA에서 열린 한상대회에선 제품을 전시해 알리고 미국 인증도 준비하고 있다. 우리의 다음은 글로벌 시장이다.”

/파주=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글로벌 유니콘 꿈꾸는 ‘아기유니콘’ 키운다

중기부,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업력 7년 이내 창업 기업 대상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제도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유니콘을 꿈꾸는 ‘아기유니콘’을 발굴한다.

중기부는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및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을 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누적 투자유치 실적 20억~100억원 미만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기술·사업성 평가, 전문평가단 심층 평가, 전문평가단·국민심사단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올해부터는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선정 과정에서 해외시장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기업에 대해 가점 등을 부여해 우대한다.

선정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 개척 자금 최대 3억원, 특별보증(최대 50억

원), 정책자금(최대 100억원)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 대학원에서 유학 중인 글로벌 인재들의 아기유니콘 취업 연계, 현지 대형 플랫폼과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해외 시장진출 지원, 클라우드 플랫폼과 협업을 통한 동반 진출 등 기업 수요에 맞춘 추가 지원책으로 아기유니콘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선정 기업 중 기업가치가 급성장한 기업을 추가 선별해 추가 지원하는 ‘아기유니콘+’도 추진해 아기유니콘이 예비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혁신성, 성장성, 시장검증을 모두 갖춘 기업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 ▲지역 스타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보증심사를 거쳐 발표평가에서 전문평가단과 국민심사단의 공동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최대 200억원까지 특별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성장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트랙을 신설하고, 해외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 기업과 아기유니콘이 해당 트랙에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한다.

예비유니콘에게는 민간은행이 보유한 해외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 시장 진출과 글로벌 VC 대상 IR 개최를 통한 투자 유치까지 지원한다.

또한, 예비유니콘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해 특별 보증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추가대출 및 투자를 연계하는 한편, 사업전환과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 등을 위해 M&A에 소요되는 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유니콘 후보기업 국민추천제’를 통해 혁신성과 성장성 등을 보유한 유니콘 후보기업이 있으면 누구나 4월 12일까지 중기부 누리집이나 K-유니콘 누리집에서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기보, ‘데이터 가치평가’ 전문기관 지정

기술보증기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해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5일 기보에 따르면 ‘데이터 가치평가’는 데이터의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된 평가기법 및 평가모형에 따라 가액·등급·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활동으로, 평가기관은 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은 ▲가치평가 모형 확보 ▲10명 이상의 전문인력 확보 ▲업무수행할 수 있는 설비 및 조직 보유 ▲평가정보 수집·관리·유통하는 정보통신망 보유 등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보는 1995년 ‘발명진흥법’에 의한 특허기술 사업성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기술평가, 지식재산 가치평가, 탄소 가치평가에서 오랜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다.

/김승호 기자

벤처協, 예비창업자 100명에 멘토링 등 지원

벤처기업협회가 오는 15일까지 ‘예비창업패키지소셜벤처’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5일 벤처협회에 따르면 예비창업패키지사업은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창업에 필요한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 전반적인 창업지원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한다.

벤처협회는 이번 예비창업패키지 모

집을 통해 총 100명의 소셜벤처 예비창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1차 사업설명회는 8일 오후 2시 서울역삼동 마루180 이벤트홀에서 오프라인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진행한다. 2차 사업설명회는 10일 오후 2시 유튜브 K-OVA-SVI 채널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